

종단협 회장 추대 조계종 자승 스님

한국불교 27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신임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대됐다.

종단협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에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부회장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태고종 부원장 법현 스님 등을 신임 상임이사로,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을 이사로 선출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협에 소속된 여러 종단 대표 스님들과 호흡을 맞춰 한국불교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 및 7억 2120만원의 예산안도 심의 확정됐다. 종단협은 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훈)은 11월 29일 제14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했다(사진).

44명의 국제포교사를 배출한 품수식에서 혜훈 스님은 "세속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음에도 보살행을 발원한 여러분은 유마 거사와 같은 진정한 보살"이라며 "보살 정신으로 5계를 지키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포교하라"고 당부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성필)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을 위한 불교 영문 자료 발간, 각종 국제행사(연등축제, 외국인행사 등)도 세계를 향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목숨걸고 법등 잇는 것이 수좌 사명”

12월 1일 동안거...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결제 현장

기축년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1일, 해인사 송광사 봉도사 수덕사 백양사 선원을 비롯한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는 오전 10시 일제히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결제에 앞서 전국 2300여 수좌스님들은 하루 전날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했으며, 이날 사찰 별로 방장·조실 스님 등에게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기축년 동안거 결제날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등성이다마 소복히 쌓인 설악산(雪嶽山)의 초설(初雪)과 백담(白潭)계곡의 백담(白潭)이 절경을 이룬 가운데 백담사 무금선원의 눈 푸른 납자들도 안거에 들어갔다.

“시간이 멈춰 반뇌조차 멈춘 곳”이란 뜻을 지닌 무금선원(無金禪院)은 1998년 문을 연 이래 설악산에서 선지를 드날리고 있다. 무금선원은 행자교육 이후 사미 스님들이 선 기초를 다지는 ‘기본선원’과 구참 스님들이 폐문정진(閉門精進)하는 ‘무문관(無門關)’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동안거에는 무문관에 들어간 11명의 구참수좌를 비롯한 50명의 납자들이 방부를 들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선원이지만 결제 전날, 무금선원장 신룡 스님은 교계 기자단에게 이례적으로 무문관의 외부정경을 공개했다. 수행의 공덕은 회향에 있기에 사부대중 모두 한마음으로 안거하듯 정진하자는 취지다.

대중이 한데 모여 3개월간 수행하는 일반 선원과 달리 1~2명에 불과한 공간에서 화두타파까지 묵언수행하는 무문관. 무문관은 매일 오전 11시 한 번의 법당이 겨우 지날 정도의 ‘공양구’ (供養口)로 공양주가 건강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외부와 절



신룡사에 방부를 들인 스님들이 결제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줄지어 극락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히 격리된 수행처다. 무문관 3개의 각 건물에는 결제 전에 들어가 이미 정진 중인 스님들이 있음에도 고요했다. 확철대오의 그 순간까지 수행 이외의 일체행위가 배제된 치열한 자기와 싸움. 무문관은 무문(無門: 문자를 떠나고) 무문(無聞: 말도 있는 채로 무문(無: 번뇌망상의 어지러움) 없는 경지)을 얻는 결사정진의 현장이었다.

무문관 공개에 앞서 선방 한켠에 마련한 자리에서는 선원장 신룡 스님을 비롯해 결제를 기해 무문관수좌

를 비롯해 결제를 기해 무문관수좌

를 비롯해 결제를 기해 무문관수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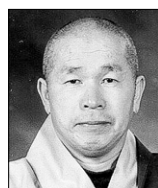
성천 스님 법규위원장 선출

조계종 법규위 제60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2월 3일 제60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화법 스님의 후임으로 간사 성천(性泉) 스님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성천 스님은 월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후 법주사 부주지, 불국사 부주지, 종주대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03년 3월부터 법규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날 법규위원회는 범어사와 쌍계사간 사전 다습사 관할 운영권 심판에 대해 “말사 관할은 지방종정법에 따라 중앙종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쌍계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심판에 앞서 범어사는 30여 년간 범어사 말사로 운영된 점을 들어 각하를 요청했으며 쌍계사는 반환의 당위성을 들어 중앙종회에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수행승 복지정책 수립해야”

수좌회, 해제비 ‘수행복지비’로 변경

실상사·백양사 야단법석 등 불교계 안팎에서 ‘안거 해제 후 수행승들에게 지급하는 해제비가 오히려 수행정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수좌회에서 ‘해제비’를 ‘수행복지비’로 바꾸는데 결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방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측면을 강조하고 차후 종단 차원의 수행복지체제를 확립할 것을 표명한 것이다.

백담사 무금선원장 신룡 스님은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1일 오후 한가 해제 시 제방 40여개 선원 73명의 대표 스님 등 전국선원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된 문건을 배포했다.

수좌회는 결의 문건을 통해 “수좌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지 대책인 탁발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중공양금 자체를 폐단이라고 여겨 계속 비판만 한다면 그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며 “수행승들의 복지정책을 수립해 더불어 함께 사는 승가화합체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2010년 예산 105억여원 확정

천태종 총의회의장 도산은 11월 3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85차 정기총의회를 열고 2010년도 예산으로 105억 4353만원을 심의·확정했다. 전년보다 약 5%의(5억 383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의회에서는 종헌 중법의 개정도 이뤄졌다. 총의회는 종헌 제112조와 사찰법

제13조에 “단, 종단 앞으로 등재할 수 없을 시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부등산 구입시 종단 명의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의회는 이 밖에 ‘재단법인 원각문화재단’과 ‘사단법인 천태불교전통문화원’ 설립안과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덕현 기자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東大 교원 역량강화책 ‘파문’

지금 동국대 교수들이 술렁이고 있다. 동국대 대학본부의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안)’ 때문이다.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은 동국대의 연구·교육역량의 제고를 목표로 교수의 연구실적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문을 엄마하는 대학에서, 연구·교육이 업인 교수들에게 이 ‘안’이 문제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교수들은 이 ‘안’이 연구자들의 연구 풍토 진작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동국대의 대학평가가 순위 상승을 빌미로 교수를 압박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허남결)가 ‘안’을 검토한 결과, △신뢰와 동기부여가 결여된 평가 △연구 인프라 관련 타 대학의 자의적 선별 △연구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수들의 ‘안’ 검토 뒤에는 “(학교가) 연구비 몇 푼 갖고 교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학교의 교육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가지표의 남발은 교수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이라는 학교 측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도 있었다.

동국대 구성원 다수는 “오영교 총장이 취임 후 ‘보여 지는 것’에만 집착했다”고 주장한

다. 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중앙일보 평가 대학 순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꼬집는다.

‘안’은 일간지 대학평가 발표 후인 10월 20일, 오 총장의 총장경영리포트에서 예고됐었다. 오영교 총장은 총장경영리포트에서 “중앙일보 평가가 전년 대비 2위 상승에 그친 원인을 배경이 가장 높은 교수연구역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12월 1일, 교수회의 ‘안’ 시행 유보 공문과 함께 이성철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의 ‘동국인에게 고향’이라는 글이 공개됐다. 이 교수는 글에서 “대학평가 순위 15위에 들지 못하면 총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자들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언론사의 대학평가 등급을 올리려는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 대학발전을 위한 선순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 호소했다.

이념과 학문적 가치를 경영기법에 점령당한 채 상명하복의 의사 결정구조로 경직돼 가는 ‘학문의 전당’ 동국대가 이번 ‘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학생의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正)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부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청화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행복찾기



312쪽 값 12,000원

스님은 책에서 특별히 가르치거나 훈계하려 하지 않는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고, 인격적으로 허물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 연합뉴스

이 책은 때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로, 때로는 시인의 감성과 출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해 성찰과 행복, 각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스님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 불교방송

힘든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행복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 쪽에서도 불교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 현대불교

청 화 스 님 산 문 집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